

영암 F1 D-3...머신·드라이버 속속 입국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F1 머신과 팀 관계자들이 대거 영암을 찾는 등 개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대당 100여원이 넘는 F1 머신과 장비들(660t·항공기 6대 분량)이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트럭 88대로 나뉘어 경주장에 옮겨졌고 12일부터 미하엘 슈마허와 제바스티앙 페텔 등 드라이버들도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일본 그랑프리를 마친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GP, HRT 팀 관계자 270명이 10일 전세기 직항편으로 무안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무안=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개막

120여도시 600여명 참석...지구 환경보전 새 비전 제시 광주선언 채택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가 1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막희 개막식을 시작으로 3박4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와 함께 '녹색 도시, 더 나은 도시(Green City, Better City)'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78개 해외도

시와 12개 국제기구 등 120여개 도시에서 600여명이 참석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선언, 1997년 일본 교토의 교토의정서에 이어 광주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회의 기간 중 발표되는 광주선언문을 통해 도시환경평가 지표 및 도시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해 참가도시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협력기구인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연합 출범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가 이번 회의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시환경 평가지표'와 '도시 청정개발체계'개발 등을 주제로 다뤄며 12일과 13일 이틀간 모두 3개의 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부대 행사인 환경광란 4대 국제회의와 환경

박람회, 문화행사 등은 14일까지 펼쳐진다. 회의 개막에 앞서 해외 도시 대표들은 10일 오후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속속 입국, 광주에 내려와 여장을 풀고 회의준비에 들어갔다.

12일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 개최식에서는 이명박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축사가 전달되며 UNEP 아마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과 유엔 헤비타트 후안 크로스(Huan Cros)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형석기자 chad@kwangju.co.kr

광주교대 내년 신입생 81명 감축

교과부, 총장 직선제 폐지 거부 제재...재정 지원도 중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대상 제외 대학으로 분류됐던 광주교육대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됐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내년 신입생 81

명을 줄이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맺은 '교과부·교육대·한국교원대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협약'에 광주교

육대가 참가하지 않은 만큼 내년 신입생 정원을 22% 줄이고, 행·재정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9명인 입학정원은 81명이 줄어 288명으로 축소되며, 대학원 정원도

동결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가 지난달 23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를 지정하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구조개혁을 수용하지 않은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광주교대를 교과부 지원대상 제외 대학으로 발표할 때 따른 것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

현주소

리더십 실종...분열·반목 변화 못따라가 변방으로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민심의 화두는 '강력한 변화'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축 세력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탄생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광주·전남 정치권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넘어서는 정치적 비전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의 중심에서 정국을 좌우하기 보다는 점차 변방으로 밀리며 종속 변수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다. 광주일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권의 현주소와 침체의 원인, 미래 비전 확보 등을 3회에 걸쳐 조명한다.

앞으로 10년간 대선주자도 못낼 판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 각종 정치 이슈를 선도하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탄생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상은 최근 크게 침체했다. DJ를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였던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점차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그 원인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 탓이라는 평가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경제적 여건도 갖춰지면서 시대적 흐름이 경제 양극화와 복지, 삶의 질 등으로 다변화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감한 정치적 도전과 응전으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창출하기 보다는 DJ의 그늘에 안주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은 서민과 중산층의 현장에서 시대적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보신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고 있다. 나아가 향후 10년 이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핵심 기반은 호남'이라는 상징적인 공식도 조만간 붕괴될 전망이다.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징적 의미가 점차 퇴색하면서 호남의 정치적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부산 등 영남 민심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의 흐름은 '강력한 변화'로 모아질 전망이다.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일보가 올 추석 직전 1만4천800명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4%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역 민심의 흐름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22회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일시 : 2011. 10. 16(일) 10:00
장소 : 모교운동장
주최 :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주관 : 광주동신고등학교 17회
연락처 : 010-7573-0000
추진위원장 박상열
17회총회장 정재근

2011년도 제22년차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일시 : 2011. 10. 16(일) 09:30
장소 : 모교운동장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병용

롯데제이티비

여행 상품 문의 1577-6511

www.LOTTE JTB.com

2차는 쏜다!

롯데JTB 대리점도밍! 062) 228-6644

2011 가을 HONEYMOON 특전

중국 여행

상해

4일

북경

4일

4일

일본 온천 여행

하코다테 등반+벤토 온천

4일

광양해리 온천+산림 예약특전

아~대한민국

불꽃 축제

다들

파주 헤이리 마을

유럽

롯데JTB

타키원전일주 99일

유럽 3국

동남아

가을맞이 알뜰 상품/최후의 찬스!

5일

5일

미주

롯데JTB

하와이

5/6일

남태평양

롯데JTB

하와이

5/6일